기획시리즈

대학법인, 무엇이 문제인가

통제에서 교육자율의 길로

〈完〉대학법인과 정부

〈글 싣는 순서〉
Ⅰ. 대학법인의 성격
Ⅱ. 대학법인과 이사회의 위상
Ⅲ. 국립대와 사립대학의 법인
Ⅳ. 대학법인과 정부

Ⅰ. 들어가며

최근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개혁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교육의 부조리가 뿌리깊게 만연해 있다는데 기인하겠지만 '교육정부'를 부르짖는 문민정부시대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아마도 얼마전 발생했던 초유의 대학입시부정에서 그 발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입시부정은 그 치밀함과 광범위함에서 그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더욱이 뒷맛이 개운치 못한 수사종결은 더욱 잠재해 있을 입시부정 사례들을 억측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입시부정의 범위나 그 잘잘못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입시부정을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대학법인들의 현주소와 무엇보다도 부정의 발단이 된 재정문제등을 하나하나 짚어 보려고 한다.

대학은 누구로부터도 자유로운 자주성을 지녀야 하지만 또한, 어느누구의 사적인 소유가 될수도 없는 공공성을 보장받아야 하기도 하다. 이러한 심각한 대학의 재정문제와 자주성·공공성의 문제를 위하여 대학법인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Ⅱ. 대학법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학법인은 사립대학을 설립하고 그것을 경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설립하는 법인을 칭한다.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의 성격으로 보기에 법인에서 제외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과 정부와의 관계는 보통 학교를 매개로 관계가 성립될을 볼수 있다. 물론 여기서 정부의 범위도 교육부를 중심으로한 협의의 개념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기본권중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 보면 국민은 사립대학 설치의 자유, 대학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리, 학문의 자유등을 누릴 수 있으며 제도적으로 대학 자율성 보장을 위한 대학자치제도가 보장되고 있다. 더불어 사립학교법을 살펴보아도 제1조에 보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으로 사립학교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은 그 자율성을 한다는 '공공성'의 요청에 의해 통제되기도 한다.

Ⅲ. 사립학교법의 문제

사립학교법은 애초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법이다.

지난 90년 사립학교법은 나름대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개정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제단의 고질적 부패를 감시·견제할 세력이 사라지고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방도가 전무해졌다는데서 그 개정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은 개정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문민정부가 출현한 이시점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법조문으로만 해석할 경우 교수의 제임용이 매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교수신분 보장과 연구의 심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더구나 선전국의 경우 조교수이상 직급에는 일생을 보장하는 '테뉴어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리고 최인최의 총학장임명의 경우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임면을 제한할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그런에서 지탄받아온 일들이 우리교육계에 있어왔던것도 부정할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우려는 교수협의회와 같은 교수들의 직접참여의 길을 통해 견제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것이다. 또한 이사진의 임명비율이나 이사장직 겸임의 문제는 자율과 상호존중의 입장이 모색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 이전에 대학의 자율성과 자유, 독립적연구라는 대전제를 위해 재단이나 학교 경영자가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시대적인 경영자와 소유자간의 대립 이분관계를 청산하고 바른 교육입국을 위해 공정한 협력을 하는 호혜정신의 조성이 시급하다.

Ⅳ. 사학의 재정지원

앞에서 우리가 다룬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에 관한 영역은 처음부터 법인과 정부사이에 갈등이 내재해 있는 문제이지만, 사학의 기금조성에 관해서는 정부와 대학법인 둘 다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선 국가는 교육책임에서 유래되는 국가의 교육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지원'은 없고 '통제'만이 있는 상황에서 '지원'과 '통제'가 적절히 혼합되고 형태가 바뀔지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 통제도 재정지원에 관련해서가 아닌 공공성에 대한 감독 외무로서의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법인 스스로의 재정확보 방안도 최근 논의되는 기부금 모집, 학교채 발행, 기업으로부터의 보조 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대학의 주된 운영비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사립대학이라해도 학교법전을 위한 사설투자 등에 대해서만 법인이 노력을 할 수 있어도 교육경비 자체는 국가의 몫이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진다.

대학법인과 정부의 역할은 사립대학의 올바른 발달을 돕는데 있다. 대학의 첫째 주체는 그 대학의 구성원들이지만 법인과 정부는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조역자의 위치인 것이다. 아울러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에 공동책임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마무리하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수익자의 위치에서 보더라도 사립대학은 고급인력을 배출해온 절대적인 자리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매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을 외롭게 감당해 왔다.

그러나 결코 그 짐들을 사학재단만이 짊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은 그동안 숨하게 노정되어온 자율성의 부재와 빈곤의 악순환만이 되풀이 하게 할 뿐이다.

앞으로 정부는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대학법인에 대한 감독·통제보다는 지원과 지도에 역점을 두어야 함과 동시에 사학재정난 해결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은 명명백백하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세계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은 이제 부피만 늘려가는 팽창주의에서 양질의 교육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부와 대학법인과 각 기업들 모두 이제 대학교육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문민정부의 개혁조치가 속속 늘어나는 것을 보며 대학 내의 자기개혁과 더불어 잘못된 대학행정과 무관심도 하루 바삐 바뀌기를 고대해 본다.

〈기획부〉

자주성과 함께 공교육으로서 공공성 갖춰야

사학재단 지원자로서 정부의 자리매김 필요

범률에 의하여 보장받음으로써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규정받고 있다. 이것은 법인에 의해 설립·경영되는 사립대가 국가로부터의 자율과 대학법인으로부터의 자율이 자치의 필요조건으로 요청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종합해서 사립대학의 기준을 정리해 보면 첫째, 대학의 자율성 보장 둘째, 사학으로서 자주성과 공공성의 보장 세째, 사학발전을 위한 재정지원들이 요구된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학이 무제한의 자율과 자치권만을 요구받는 것은 아니다. 교육자유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는 사교육의 자유라는 '자주성'이 인정되는 동시에 공교육 기관으로서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여야 서는 양측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 대해 사학재단은 쩍사랑이라 할만큼 다급한 실정임에도 정부는 별반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립대가 현재 직면해 있는 재정난과 국고의 재정지원을 살펴보면 우리 교육의 기형적인 모습이 보다 확연해진다.

해방 당시만 하더라도 7천~8천여명에 불과했던 대학생수는 현재 약 160만명에 이르러 200배 팽창이라는 놀라운 양적성장을 이룩했고 숫적으로는 세계에서 2위를 이룩했지만, 우리나라의 지나친(?)교육열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대학의 재정확보를 위해

강단시론

원 용 순
〈외대교수·영문학〉

혼돈과 질서, 그 역의 합일

Ⅰ. 글을 시작하며

인간은 얼마나 기묘한 동물인가! 얼마나 고귀한가. 도대체 어떠한 괴물이며, 혼란이며, 천재란 말인가! 만물의 재판관이며, 지상의 연약한 벌레이며, 진리의 보고이며, 불확신과 실수의 나락이며, 우주의 오만과 쓰레기란 말인가! -파스칼, 명상록

Ⅱ. 우주속의 인간

지금 우리는 바야흐로 문제의 초점을 외부로 부터 자기 내부로 돌려 보다 심각하게 자기성찰을 할 때이다.

혼돈과 질서, 어둠과 밝음, 이것은 서로 상극하며 공존하는 우주생성의 기본패정이다. 신은 태초에 혼돈속에서 질서를, 어둠속에서 빛을 지어냈다. 이 사실을 성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서 우주 공간에는 카오스의 세계와 코스모스의 세계가 존재한다. 전자의 세계가 혼돈과 질서없는 황량한 곳으로 어둠의 악령들이 사는 지역이라면, 후자 코스모스의 세계는 질서와 조화의 곳으로 우리 인간이 살고있는 공간이다. 이 두 세계는 각각 상반된 공간을 점유하면서도 한 우주속에 공존한다. 이같은 우주를 대우주(macrocosm)로 본다면 이 대우주에 소응하는 우리 인간은 소우주(microcosm)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소우주인 인간에게도 이 두가지 세계, 즉 혼돈의 세계와 질서의 세계, 어둠과 밝음의세계가 공존하며 상극하게 된다.

Ⅲ. 인간의 참모습

일찌기 러시아 작가 '도스트옙스키'는 인간의 참모습에 회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네가 가장 세련되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속인들이 말하듯이, 꼭 예정된 것처럼 그같은 추한 일들이 느껴지고 행해지도록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는 다시 말한다. "나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한 인간이 '코스모스'의 이상으로 출발해서 '카오스'의 전망으로 끝맺는 것은 견딜수 없는 일이다. 더욱 괴로운 것은 영혼상으로 '카오스'적인 절망을 지닌 한 인간이 '코스모스'적인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무죄한 젊은시절의 이상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점이다."그는 인간이 이성적이며 또한 선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다시 "카라마조프의 형제"의 '미챠'의 입을 통하여 천사들에게는 신의 권좌를 보여주지만 벌레같은 인간에게는 '관능의 욕망'만을 허용한다고 말한다. '미챠'는 성인과 같은 동생 '알료샤'의 손을 잡고 울며, "나는 벌레야. 이것은 특별히 나에게 맞는 말일꺼야 우리 카라마조프가의 사람들은 그런 벌레들이야. 네가 천사라해도 그 벌레가 역시 네 속에 살아서 너의 팟줄속에서 태풍을 일으킬거야."라며 절규한다.

Ⅳ. 양면성의 인간

영국의 작가 'R. L. 스티븐슨'은 이같은 양면성을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에서 보다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킬박사는 자신의 용모와 성격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묘약을 발견한다. 그가 이 약을 먹음으로써 선하고 존경스런 성품의 '지킬'박사는 사악하고 타락한 '하이드'씨로 변신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이 묘약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 약은 인간의 이중성격을 복합·분리시킬 수 있는 선악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그가 이 약을 먹고나서 약의 효력이 몸 속에 퍼져나갈 때 '지킬'박사의 내면의 소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나의 감각 속에는 무엇인가 이상한 것, 믿을 수 없으리 만큼 새로운 것, 또 고상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달콤한 것이 있다. 나는 육체상의 젊음과 행복과 산뜻한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마음 속에는 어지러운 혼돈과 환상 속에 돌레랑아처럼 붙어가는 무질서한 감각의 흐름, 세속적 의무의 해탈,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도덕적인 영혼의 해방감을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스스로 이 새로운 삶을 인식했던 그 순간으로부터 심배 이상이나 더욱 자신이 잔악해졌으며, 나의 원죄의 노예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 순간에도 회열은 포도주처럼 나를 열광시켰다."

Ⅴ. 글을 맺으며

그러면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치탈고 있는 이 '카오스'의 세계를 초극하고 '코스모스'의 질서와 밝음의 세계를 지향하기 위해 '머시아 엘리아데'의 '성과 속(the Sacred and the Profane)'의 원리를 원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이 세계에는 '성(聖)과 속(俗)'이라는 두가지 존재양식이 있다고 설명하고 '속'의 초극은 성현(hierophany)을 통하여 '속'의 본래 의미가 상실될 때 성(聖)이 출현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성과 속'은 서로 상극하면서 함께 존재하며 융이면서 하나가 되는 '역의 합일(Coincidentia Oppositorum)'의 상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신비스런 종교의 본질로 귀의함을 뜻한다. 끝으로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의 시 '금빛 머리칼' 중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 결론에 대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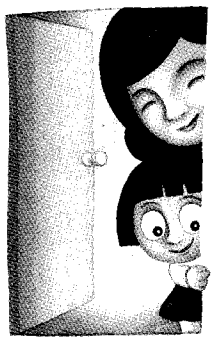
거짓말의 청수리에 정면으로 투창하는 신앙만이 원죄와 인간 마음의 타락을 가르쳐 준다.

"Tis faith that launched point
—black her dart At the head
of a lie—taught Original Sin,
The corruption of Man's
Heart.

—Golden Hair

— 공부하는 직장인 —

아빠는 몇 학년?



"아빠는 몇 학년이야?"
국민학교 1학년 짜리 우리 집 꼬맹이가
가끔 묻는 말입니다.
퇴근 후 책상머리에 붙어앉아 있는
아빠의 모습이 그 아이에겐 꽤나 궁금한 모양입니다.

공부하는 아빠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준다 —
그것도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나날이 변모해가는 사회 · 경제환경에
미리 대처하고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해
공부하는 제 자신은 하루가 새롭고
매사에 의욕이 샘솟습니다.

21세기의 문턱 —
눈 앞에 열리는 새로운 시대 —
지금, 새것을 배우고 익혀야 할 때 아닙니까.

저희 동부가족은 창업초기부터 '공부하는 자세로 일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초국산전회에 기여함을 기쁨으로 일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새시대에도 저희 모두는 공부하는 자세로 저마다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므로써 우리 경제발전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동부그룹

■기간산업부문 : ■ 동부산업 ■ 동부제강 ■ 동부화학 ■ 동부건설 ■ 동부고속 ■ 동부엔지니어링 ■금융 · 보험부문 : ■ 한국자동차보험 ■ 동부애트나생명보험 ■ 동부증권 ■ 동부상호신용금고 ■ 동부창업투자